

지역 소식 통

정읍시, 재정 신속 집행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

정읍시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하반기 신속한 재정 집행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지난 21일 위촉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시장실에서 2020년 하반기 재정 신속 집행 보고회를 열었다. 박승기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보고회에는 각 실·과·소 부서장이 참여했다. 보고회에서는 하반기 집행계획과 함께 부진사업에 대한 문제점, 실적 제고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모든 부서가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경제에 과급효과가 크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1억 이상 주요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집행에 사활을 건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국비 9억원 확보  
신재생에너지 공모 선정

부안군은 작년에 이어 3년 연속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주택, 공공, 상업(산업) 건물 등의 특정지역에 태양광, 태양열 등 2층 이상의 에너지원을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공모 사업으로, 부안군은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고에 따라 부안을 행안부 일원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6월 공모신청을 했다. 이후 공개평가를 거쳐 최종 총사업비 19억2천3백만원 중 국비 9억2천5백만원을 확보했고, 2021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부안군 관계자는 "2021년에도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에너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겠으며 지역 주민들의 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식초문화도시 탄력

농진청 '2021 연구-지도-민간 블렌딩 모델 공모' 최종 선정  
국비 10억원 확보... '복분자 고사문제' 해결 등 사업성 호평

고창군이 농촌진흥청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역 현안사업 중 하나인 복분자 고사문제 해결은 물론 세계 4대 식초문화도시 도약에 청신호가 켜졌다. 22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2021년 연구-지도-민간 블렌딩 모델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0억원을 확보했다. 사업은 농진청과 지자체가 공동목표를 세우고, 지역 맞춤형 통합기술지원



고창군은 최근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2021년 연구-지도-민간 블렌딩 모델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0억원을 확보했다. 자료사진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신개념 지역농업 상생모델이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전국에서 단 4개소만 선발됐다. 각 지자체는 내년부터 2년간 국비 10억원을 각각 투입해 선도모델 지자체로 육성된다. 고창군은 '복분자와 식초를 활용한 면역력 강화 제품개발과 생산기반 구축'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특히 코로나 시대 국민 건강증진과 지

역농업 부가가치 향상 기여 등 사업성에서 심사위원단의 호평을 이끌어냈다. 고창군의 3대 추진 전략은 ▲복분자 재배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고사원인 규명=생육장애 극복 환경개선, 숙기별 재배단지 조성, 무병묘 생산기반 구축 ▲복분자 식초 소재산업 발굴을 위한 식초의 우수성 확보=면역력 강화 등 건강기능성 제품 연구개발, 미숙과 활용 기능성 제품 개발 ▲식초관련 제품 상품화 및 홍보·마케팅을 위한 가공사업 확대=기능성제품 생산, 상품화지원 플랫폼 구축운영, 마케팅 및 수출지원 등이다. 복분자는 고창군의 지역소득을 높이는 중요한 효자작목이었으나 계속되는 연작과 병해로 고사율이 증가하면서 재배면적이 점점 줄어왔다. 민선 7기 유기상 고창군수는 역점사업으로 복분자산업 활성화를 선정하고, 수매장려금 지원, 고사문제 해결 등에 헌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국내 최초로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과 공동으로 식초문화도시 고창을 선포하고 식초산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노력한 윤준병 국회의원은 "우수한 우리 지역 고창 복분자 식초가 국내 식초 산업을 이끌어 가고 더 나아가 세계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내장산수목원에 초가를 정취를 물씬 풍기는 꽃무릇이 만개해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내장산수목원 '꽃무릇' 초가을 물씬

이번 주 절정...방문객 유혹

정읍시 내장산수목원에 초가를 정취를 물씬 풍기는 꽃무릇이 만개해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내장산수목원 꽃무릇은 내장산 저수지를 지나 조각공원 인근으로 가다 보면 울창하게 우거진 나무숲 사이로 선홍빛의 꽃무릇 군락지를 형성하고 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붉은 용단을 펼쳐 놓은 듯한 꽃무릇은 곱디고운 빛과 자태로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는다. 특히 긴 속눈썹처럼 아름다움을 뽐내듯 하늘 위로 솟은 긴 수술이 인상적이다. 수선화와 식물인 꽃무릇은 아름다운 모습과는 달리 뿌리에 코끼리도 쓰러뜨릴 정도로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

다. 이 때문에 절집을 단장하는 단청이나 탕화 보존에 유용하게 쓰기 위해 사찰 주변에 꽃무릇을 많이 심었다고 전해진다. 내장산수목원의 꽃무릇은 9월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 보름 정도 만개한 뒤 서서히 꽃잎을 떨군다. 이번 주는 꽃무릇이 절정에 달해 붉은 물감을 흠뻑려 놓은 듯 어느 때보다 멋진 풍경을 만나 볼 수 있다. 내장산수목원 안의 꽃무릇 군락지에는 사이사이 걸을 수 있는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다. 또 곳곳에 쉴 수 있는 벤치도 놓여 있어 가족과 연인, 친구들과 함께 가을 나들이하기에 제격이다. 꽃잎이 떨어지기 전 내장산수목원의 꽃무릇 꽃길을 걸으며 가을을 만끽해 보자. /정읍=김대환기자

부안, 테라릭스-대창모터스 기술개발 협약

소형 모빌리티용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구축 등

부안군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연료전지 전문 스타트업 테라릭스(구:퓨얼셀랩스, 대표 김태영)와 초소형 전기차 전문 기업 (주)대창모터스(대표 : 오충기)가 수소·연료전지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정부의 그린 뉴딜과 수소 경

제 활성화 기조에 맞추어 역량을 모아 소형 모빌리티용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및 차량 적용 기술 개발을 협력할 예정으로, 테라릭스(주)는 수소전기차의 엔진에 해당하는 수소 연료전지를 개발하고 (주)대창모터스는 사시와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을 전담하면서 연료전지 부품 및 차량제조 관련 기업과

협업해 미래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의 신재생에너지 융합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군에서 육성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미래 전기차 분야를 선도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있다"면서 "부안군에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활기를 띌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유기상 고창군수, 고수면서 '찾아가는 이동군청'

유기상 고창군수가 22일 고창군 고수면을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찾아가는 이동군청'을 열었다. 유 군수는 오전에는 면사무소를 찾아 직접 군수에게 문제점을 이야기하

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오후에는 직접 민생현장을 찾아가 민원 해결에 애썼다. 이날 고수면사무소에는 민원인들이 찾아와 코로나19 방역규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농로 포장 방지턱 설치, 가변차로 설치 등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이야기 했다. 영농현장으로는 고수면 백향과 재배 농장에 둘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우수농산물 '드라이브스루' 할인판매

25일 산지유통센터 내 주차장

정읍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우수농산물 '드라이브스루(승차 구매) 할인 판매'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돕고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행사는 오는 25일 오후 3시부터 정읍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내 주차장 일원에서 열린다. 행사 품목은 사과와 배, 수박, 토마토, 방울토마토, 메론, 애호박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 7개 품목이다. 시중 판매가격보다 3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결제방식은 카드 결제만 가능하다. 드라이브스루 직거래 행사는 코로나

19 전염병 예방을 위해 구매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원하는 상품을 차에서 직접 받는 방식이다.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보 이동은 진행하지 않으며 차량을 이용해 정읍APC 정문으로 진입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코로나19와 태풍피해로 관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들은 품질 좋은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